

약사여래 원력으로 청진기를 잡습니다



단전호흡강의 듣고 불교와 인연
힘들고 어려울땐 경전 읽으며 극복
성실하고 밝은 천성에 별명 '달마'
값싼 진료비, 친절한 병원 위해 최선

광주 방부불교병원 홍/기/표 원장

"오늘 제가 당직인데 응급실에 환자가 있어 먼저 다녀올랍니다."

광주 계림동에 자리한 방부불교병원 홍기표 원장(洪箕杓·44). 바쁠 것이라 예상하고 일과가 끝난 저녁에 병원을 찾았건만 원장실에 잠깐 불들어 놓기가 쉽지 않다.

여기저기 병원 내를 서성인데 복도 벽면에 붙여진 글씨가 눈에 띈다.

약사여래 동방정토(藥師如來 東方淨土) / 광주동방 계림방부(光州東方 鷄林邦父) / 약사여래 서원성취(藥師如來 誓願成就) / 계림방부 불교병원(鷄林邦父 佛敎病院)

'광주의 동쪽 계림에 자리한 방부불교병원은 동방의 약사여래 서원성취 도량이다'는 홍원장의 불교병원 건립의지가 담긴 글귀다. 약사여래는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기 위해 열두 가지 원을 세운 부처이다. 내 몸과 남의 몸에 광명이 가득하게 하고, 불구자로 하여금 모든 기관을 완전하게 하고, 중생의 기갈을 면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가난한 이에게 의복을 갖추게 하여 무상보리를 증득케 하는 원이다. 이러한 약사여래의 원을 좇아 홍 원장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 불교병원을 개원했다.

"의대 재학 중 나주 다보사 일문 스님 병문안을 갔더라. 스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이 찡 찡했다."

스님 수술에 앞서 목사가 머리맡에서 '하나님' 찾으며 기도하더라는 것이다. 기독교 병원이었던 것이다. 목사의 마음은 고맙지만 불교병원 하나 없는 부끄러움과 서러움으로 마음이 상해있던 차에 의대생을 만나 자 불교병원 건립을 당부했던 것이다. 이때 세운 불교병원 건립 원력이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기까지 홍 원장은 또 다른 인연이 맺었다.

홍 원장은 나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흔히 말하는 '시골 들팔이'를 만났다. 살이 썩어 들어가 결국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쓰게 됐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의사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 광주 원각사에서 송광사 현묵스님의 단전호흡 강좌가 있었다. 동양학과 건강에 깊은 관심이 있던 그에게 단전호흡은 불교와의 인연이 되었다. 그 후 고등부, 대학부 불교학생회를 거치면서 신심 깊은 불자로 거듭나게 됐다. 학생시절 한 권 짜리 '한글 대장경'을 머리맡에 놓고 살았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글대장경을 펼쳤다. 그때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무난하게 이겨냈다.

사회에 나와서도 그러했다. 전문의를 마치고 개업하기 위해 '대촌리' 시골로 들어갔다. 약사여래 원력을 안고 살아온 홍 원장에게 의술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었다. 경전을 읽고 또 읽고서 결단을 내렸다. 그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찾아가자는 것이었다. 당시 전문의는 대부분 시, 군 단위에 개업하는 것이 흔해졌다. 부지런하고 낙천적인 천성과 약사여래의 원력을 담은 손길은 환자들에게 쉽게 다가갔고 지역에서 으뜸



병원의 이념인 '생명발원'을 나비로 상징화 한 방부불교병원 마크

가는 병원이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홍 원장에게는 '달마'라는 별호가 붙었다. 서글서글한 외모나 성품이 친근하게 다가와 하얀 가운만 승복으로 바꾸면 영락없는 달마다.

"아마 10만 명은 족히 진료했을 것 같아요. 환자는 일거수 일투족을 잘 봐야 해요. 그러면 문제가 보이고 문제를 제대로 보면 풀기는 어렵지 않지 않지요."

홍 원장은 '명의'로 소문이 났다. 그의 전공인 가정의학과 특성상 신체를 골고루 공부했고, 단전호흡은 몸의 전체적인 흐름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환자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면 분명히 병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내린 그의 진단은 틀림이 없었다. 많게는 하루 300명이 넘는 환자를 봤다. 그러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부모님 모시듯 했다.

홍 원장은 "의학이란 막히면 뚫고 뚫고 있으면 막아서 생명이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한다. 병은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그동안 서양의학은 분야별로 매우 얽혀 되어있어 책이 대용도서판으로 하나가 되고도 남는다. 따라서 진단만 정확하면 고쳐지지 않는 병이 없다는 것이다.

도심지 한복판에 자리한 방부불교병원은 10층 건물에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진단의학과 등 첨단학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료를 담당하는 준 종합병원이다.

건물을 다시 개조해 개원한 방부불교병원은 깨끗하고 아늑하기가 호필을 받게 됐다. 50여명의 진료진이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서비스이다. 그렇지만 홍 원장은 "치료 잘하는 병원이 우선이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다음이 전국에서 가장 값싼 진료를 받는 곳이고 그러면서 진정한 병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부불교병원이 개원하자 인근 교회에서 '불교병원 건립내리기 작정기도'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불교병원에 대한 불교인들의 관심이 많은 편도 아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병원내부에서조차 은근히 간

판에서 '불교'를 지웠으면 하는 무언의 압력도 있다. "너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일은 신경쓰지 안해 버려요. 불교병원에서는 분별없이 누구라도 항상 열어놓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뿐이지요."

매월 전 입원환자가 100명이 넘었다. 홍 원장 명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제 운영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약사여래 열두 서원 가운데 일곱째가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려는 원이다. 의사, 환자를 둘로 보지 않고 병을 치료한다기 보다 환자를 도와 함께 부처되기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홍 원장의 원이다. "불교병원 건립을 위한 노후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돕겠다"는 홍 원장은 "일산 불교병원의 개원을 계기로 지역마다 불교병원들이 생겨서 전국의 네트워크 화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발원도 잊지 않았다.

글=이준엽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도량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생전 예수재 법회

질개	날짜	요일	특별법회 / 행사내역	장 소
입재	2.29	일	입재법요식	우리절
초재	3.07	일	윤달삼사순례	보문사
이재	3.14	일	주장지법회	우리절
삼재	3.21	일	태화산신제	우리절
사재	3.28	일	점안법요식	우리절
오재	4.04	일	서용근스님사리진견법회	백양사
육재	4.11	일	관정법회	우리절
막재	4.18	일	똥승법요식	우리절

제 3계 태화산신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제 8권을 나누어 드리고 제 6계 관정법회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역시 동봉스님이 사언필로 옮긴 <<저장경>>을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제4계 점안법요식에서는 예수재용품을 비롯하여 금강경탑다라니와 광명진인탑다라니를 점안합니다. 예수재용품을 회향 때 살라드리지만 이번 윤월에 우리절에서 점안한 탑다라니는 종이가 아닌 비단 위에 그려진 것으로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다시없는 좋은 효도선물이 될 것입니다.